

원저

인터넷 건강정보의 영향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인식 비교

김정은^{1,2}, 이선영³, 박선영⁴, 박미화¹, 주지영³, 김석화⁵

서울대학교 간호대학¹,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²,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간호과³, 서울대학교병원 QA팀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⁵

Comparison of Physicians' and Patients' Perception on the Effect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Jeongeun Kim^{1,2}, Sunyoung Lee³, Sunyoung Park⁴, Meihua Piao¹, Jeeyoung Joo³, Sukwha Kim⁵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¹,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²,
Pediatric Nursing Service, Seoul National Univ. Hospital³,
QA Team, Seoul National Univ. Hospital⁴,
Dept. of Plast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⁵

Abstract

Objective: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tient's and physicians' views of the effects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25 items developed by revising the questionnaire of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to accommodate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The respondents were 671 patients who were active participants in online patient communities and 493 physicians who were the professors of medical schools and practicing physicians. **Results:** Most of the patients were positive toward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aying that it gives them advice from a doctor with self-confidence, allows them to follow their doctor's directions well, obtain more medical treatment after retrieving the information, etc. In contrast, physicians perceived that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may have variety of nega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the healthcare cost, unnecessary clinic visits and undermining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between the physicians and patients. **Conclusion:**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experts provid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hich will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quality of car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nd health service utiliz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15-4, 373-379, 2009*)

Key wo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Patients Perception

Received for review: January 13, 2009; **Accepted for publication:** July 27, 2009

Corresponding Author: Sunyoung Lee, Pediatric Nursing Serv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hangno 101,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740-8473, **Fax:** +82-2-3676-4108, **E-mail:** morph88@snuh.org

DOI:10.4258/jksmi.2009.15.4.373

I. 서론

인터넷 활용의 증가, 정보화 사회의 발전, 건강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더욱 많은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고 있다¹⁾.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²⁾,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사실은³⁾ 인터넷 활용과 건강정보 검색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건강정보는 진료현장에서 의사소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인터넷 건강정보에 관한 의사들의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⁴⁾.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인지도의 차이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⁵⁻⁸⁾.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게 된 환자들은 이전 방문에서 알지 못하였거나 의심스러웠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게 되고 진료 중에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정보에 관해 의사들에게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치료나 약물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진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담과,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많은 건강정보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건강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⁹⁾. 실제로 미국에서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전체 대상 사이트의 23%만 의료인이나 학술단체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제공 사이트의 1/4 정도에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¹⁾. 또한 대다수의 웹사이트에서 약물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루고 있어 건강정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¹⁰⁾. 환자들이 여러 가지 치료방법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아직 많은 의사들은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반감시킨다. 의사-환자 관계의 협동모델(collaborative model)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건강정보를 찾아보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정보 획득을 도울 뿐 아니라 환자가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고 개인적 상황에 맞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의사들의 이러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치료의 긍정적인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¹⁾.

그러나 현재 인터넷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은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상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집단간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인터넷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 건강정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정보의 적절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의료관련 비종사자들은 최신 정보의 정기적 제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따라서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의사와 환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환자 사이의 대화방법, 의사-환자관계 개선방법,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전반적 인지도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다.
2.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인지도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다.

II. 재료 및 방법

환자 대상자로는 국내 포털사이트 및 검색사이트에서 회원수가 100명 이상인 온라인 환자커뮤니티를 선별한 후,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9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각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설문지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되었고 발송대상 1,960건 중 총 응답자는 671명으로서 응답률은 34.2%였다.

의사 대상자로는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는 “의과대학교육 현황 제13집 2004-2005 (발행처: 한국외과대학장협의회)”와 각 개원의 협의회, 서울시 의사회를 통하여 공식으로 협조요청하여 입수하였고,

대상자 명단에 온라인 설문지를 모두 발송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였으며, 발송 대상 3,100건 중 이메일 주소 불명, 스팸 처리, 서버 에러, 메일함 quota full 등의 이유로 반송된 것이 410 건이었고, 회신이 493건으로 응답률 18.33%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Murray 등이 소비자에게 약품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들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⁴⁾을 번안하여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와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26문항을 사용하였다. 환자에게 직접 약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기존 설문지 문항을 번안하여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문항을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리와 응답자들의 반응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WIN version 12.0을 사용하였으며, 두 그룹간 동질성 검정에는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과 t-test를 이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한 의사, 환자 두 집단 중 30-40대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68.4% (337명), 61.8% (415명)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의사, 환자 두 집단의 성별, 연령별 분포의 동질성 검정에서 두 집단은 동질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업무유형에서는 개원의가 43.6% (215명)로 가장 많았고 의과대학교수 31.5% (155명), 봉직의 24.9% (123명)이었다. 의사의 교육/수련형태는 전문의가 87.2% (430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의, 전공의는 각각 6.5% (32명), 6.3% (31명)이었다. 환자들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58.6% (393명)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수입은 2천 만원 이하가 54.8% (27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 71.2% (478명), “보통이다” 27.6% (185명)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보험 환자로서 그 비율은 87.3% (536명)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Physician				Patient			
	N (total=493)		%		N (total=671)		%
Age*	Under 30	12	2.4	Age*	Under 30	124	18.5
	30-49	337	68.4		30-49	415	61.8
	Over 50	144	29.2		over 50	132	19.7
Sex [†]	Female	88	17.8	Sex [†]	Female	340	50.7
	Male	405	82.2		Male	331	49.3
Geographic region	Seoul	278	56.4	Geographic region	Seoul	189	28.2
	Other	215	43.6		Other	477	71.1
Types of practice	Private practice	215	43.6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graduates and below	25	3.7
	Hired by corporate hospital	123	24.9		High school graduates	253	37.7
	Professors in college of medicine	155	31.5		College graduates and above	393	58.6
Status of training/education	Physician-in-Training	31	6.3	Total income (year)	<20,000,000	272	54.8
	Specialist	430	87.2		20,000,000-50,000,000	138	27.8
	General physicians	32	6.5		>50,000,000	86	17.3
Average number of patients per week	Under50	106	20.5	Health status	Good	185	27.6
	50-99	128	26.0		Bad	478	71.2
	100-149	84	16.6	Health insurance	Medical insurance	586	87.3
	150-199	62	12.5		Medical security	48	7.2
	Over 200	101	20.5		Other health insurance	26	3.9

* $\chi^2=86.86$ ($p=.000$), [†] $\chi^2=122.24$ ($p=.000$)

2.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의 차이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환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의사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하여 의사보다 환자가 더 동의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항 1.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34.7% (171명), 90.7% (537명)이며, “보통이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38.0% (187명), 7.4% (44명)이었다. 두 집단은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인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훨씬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항 2. “인터넷 건강정보를 접한 환자가 더욱 자신

감 있게 자신의 건강문제를 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45.1% (221명), 73.8% (435명)이며, “보통이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28.7% (141명), 19.0% (112명)로 두 집단은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인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항 3. “인터넷 건강정보를 접한 환자는 치료에 관련된 의사의 지시나 권유를 더 잘 따르게 된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환자는 61% (357명)이었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의사는 55.1% (270명)로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정보를 접한 환자가 의사의 권유나 지시를 더 잘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환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두 집단간 서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문항 6. “인터넷 건강정보는 환자로 하여금 더욱 열

Table 2.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Items		N	Mean	t	p
1 The increas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cause positive effects to patient in the general sense	Doctor	492	3.07	-25.246	.000
	Patient	592	4.31		
2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give patients confidence to talk to their doctor about their concerns	Doctor	491	3.19	-12.797	.000
	Patient	589	3.88		
3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encourage people to follow treatment instructions or advice from their doctors	Doctor	490	2.53	-20.351	.000
	Patient	585	3.63		
4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drive up the cost of health care	Doctor	490	3.40	8.791	.000
	Patient	587	2.88		
5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promote unnecessary concern of their health conditions	Doctor	491	3.79	13.236	.000
	Patient	586	2.99		
6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help patients get treatments they would not otherwise get	Doctor	491	2.80	-17.992	.000
	Patient	584	3.74		
7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of medical conditions and treatments	Doctor	491	3.36	-15.506	.000
	Patient	583	4.09		
8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cause patients to take up more of their doctors' time	Doctor	491	3.53	16.219	.000
	Patient	586	2.57		
9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promote unnecessary visits to doctors	Doctor	490	3.17	14.287	.000
	Patient	585	2.34		
10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will interfere with good relationship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Doctor	490	3.17	17.395	.000
	Patient	581	2.17		
11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re correct in the general sense	Doctor	489	2.28	-20.264	.000
	Patient	583	3.21		
12 Most patient can judge the adequacy of the internet health information	Doctor	490	1.90	-25.664	.000
	Patient	584	3.22		
13 Do you think talking with physicians about the internet health/illness information will affect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Doctor	418	2.11	1.682	.094
	Patient	184	1.75		
14 Do your physician have any idea of challenging the authorization when patient talk about the internet health/illness information?	Doctor	436	1.76	5.944	.000
	Patient	185	1.70		

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24.6% (121명), 70.7% (413명)이며 “보통이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36.7% (180명), 21.1% (123명)으로 두 집단은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가 치료추구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문항 7. “인터넷 건강정보는 건강상태나 치료에 관한 환자의 이해를 높여준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50.3% (247명), 86.1% (502명)이어서 두 집단은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의 치료관련 이해수준을 제고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환자들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항 11. “인터넷 건강정보는 대체적으로 정확하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환자의 비율은 34.6% (202명)이었고 “보통이다”로 답변한 환자의 비율은 50.4% (294명)이었던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의사는 65.5% (320명)이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반면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가 정확하다고 인식하여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문항 12.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자신에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환자 비율은 42.5% (248명)이었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의사의 비율은 86.4% (421명)이었다. 즉 거의 모든 의사들은 환자가 인터넷 건강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인식한 반면 환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두 집단간 아주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하여 환자보다 의사가 더 동의를 한 문항은 아래와 같다.

문항 4.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의 비율은 56.5% (277명)이었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환자의 비율은 39.0% (229명)이었다. 즉 많은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킬 것으로 인식한 반면, 환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여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문항 5. “인터넷 건강정보는 건강에 관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74.8% (367명), 40.7% (238명)이며 “보통이다”로 답변한 의사, 환자의 비율은 각각 15.5% (76명), 23.9% (140명)으로 두 집단은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고 인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문항 8. “인터넷 건강정보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을 길어지게 만든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의 비율은 61.1% (300명)이었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환자의 비율은 52.3% (306명)이었다. 즉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진료시간을 길어지게 만든다고 인식한 반면, 환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진료시간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여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문항 9. “인터넷 건강정보는 불필요한 병원방문을 하게 만든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의 비율은 44.3% (217명)이었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환자의 비율은 62.1% (363명)이었다. 즉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불필요한 병원방문을 증가시킨다고 인식한 반면, 대부분 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3. 의사-환자관계에 대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문항 10. “인터넷 건강정보는 의사-환자 사이의 좋은 관계를 해친다”에서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답변한 의사의 비율은 38.1% (187명)이었으나,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로 답변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69.9% (406명)이었다. 즉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의 관계를 해

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여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재확인하는 문항 13. “인터넷 건강정보에 관해 환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환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의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0.1% (126명),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50.2% (210명)인 반면, 환자들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55.4% (102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4.8% (64명)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환자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느낌을 묻는 질문인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를 문의하는 환자가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끼셨습니까?”에서는 “예”로 답변한 의사와 환자의 비율이 각각 23.6% (103명), 30.3% (56명)에 그쳤고, “아니오”로 답변한 의사와 환자의 비율이 각각 76.4% (333명), 69.7% (129명)로서 의사와 환자 두 집단 모두 도전의 느낌을 가지지는 않았다.

IV. 고찰

Stevenson 등은 당뇨병, ischemic heart disease,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8개의 focus그룹을 만들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도 얻고 상담도 하는 중재방법을 사용한 후 이러한 방법에 대한 반응과 호응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⁸⁾. 응답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게 되어 의사와의 치료적 관계를 더욱 좋게 해준다고 응답하였다. 즉 의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때는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의사를 괴롭히지도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와 환자가 의학적 문제점(예: 혈압 등)이나 치료법을 서로 공유하고 의논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개별적인 의무기록에 기반을 둔 상담이 아니므로 상담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알게 해 준다면, 검사결과에 따른 약

속 날짜의 선정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시간을 유용하게 쓰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Murray 등은 의사의 대화술이 적절하기만 하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것은 환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⁶⁾⁷⁾.

본 연구에서 의사와 환자는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에게 자신감을 주고, 환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치료관련 이해수준을 제고하는 등 대체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대부분 훨씬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의사, 환자 모두 인터넷 건강정보가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고 인식하는 등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며 두 집단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인터넷 건강정보를 접한 환자가 의사의 권유나 지시를 더 잘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건강정보가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환자는 이러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료비 지출, 진료시간, 불필요한 환자의 방문횟수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의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환자들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의사들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매우 상반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 건강정보는 의료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의료지식 자원을 환자들도 볼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의사-환자 관계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전통적인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¹²⁾¹³⁾고 하였다. 의사와 환자의 인식을 차이는 이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개발, 관리 및 활용성의 홍보에 대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매우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터넷 건강정보라는 효용가치가 있는 자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환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된 인터넷 건강정보라는 자원을 더욱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를 위시한 의료전문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터넷 건강정보의 개발에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사-환자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모든 사용자 집단의 참여를 위한 지원 및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환자라는 동일하지 않은 두 집단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성별과 연령이 동질한 집단을 목적으로 표집하여 일반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건강정보와 이러한 건강정보가 의사-환자 관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사와 환자의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환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의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두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알고 이를 개선하며 인터넷 건강정보라는 새로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1. Kang NM, Hyun TS, Tack GR. Needs assessment for health and nutrition information of Korean women through PC communic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8;4(3):365-374.
2. Cho KW. An investigation of internet usage and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by internet of domestic adults. *J of Contents Association* 2006;4(2):721-724.
3. Cho KW, Kam S, Chae YM. Analysis of internet usage patterns of health consumers for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ssessment criteria.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007;24(2):15-28.
4. Kim JE, Kim SW, Shin YJ. Survey on the physicians' views of the effects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o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Journal of CAS* 2007; 21:279-301.
5. Broom A. Virtually He@lthy: The impact of internet use on disease experience and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Qual Health Res* 2005;15(3):325-345.
6. Murray E, Lo B, Pollack L, Donelan K, Catania J, Lee K, et al. The impact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J Med Internet Res* 2003;5:e17.
7. Murray E, Lo B, Pollack L, Donelan K, Catania J, White M, et al. The impact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patient perceptions. *Arch Intern Med* 2003;163(14):1727-1734.
8. Stevenson F, Kerr C, Murray E, Nazareth I.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and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e patient perspective - a qualitative study. *BMC Family Practice* 2007;8(1):47.
9. Jacob J. Consumer access to health care information: its effect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laska Med* 2002;44(4):75-82.
10. Tatsioni A, Gerasi E, Charitidou E, Simou N, Mavreas V, Ioannidis JP. Important drug safety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ssessing its accuracy and reliability. *Drug Saf* 2003;26(7):519-527.
11. Shactman N. Why doctors hate the Internet. *Wired News* 2000.
12. Anderson J, Rainey M, Eysenbach G. The impact of cyberhealthcare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Journal of Medical Systems* 2003;27(1):67-84.
13. Hardey M. Doctor in the house: the Internet as a source of lay health knowledge and the challenge to expertis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1999;21(6):820-835.